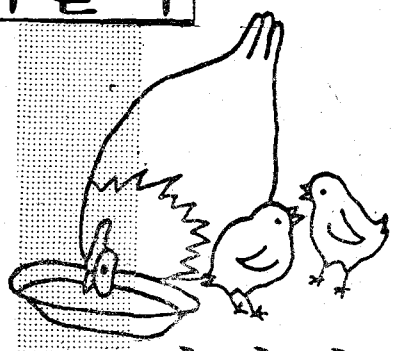


이달의



사양관리

1. 계획 수립

1) 산란양계

지나간 몇해동안의 난시세 변동, 월별 수요 공급량, 종계수입 현황, 배기에 따른 커머셜추(상업추)의 여부, 사육현황등에 관한 정확한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금년도난시세를 판단하고 월별 수요 공급량을 분석하여 여기에 따라 입추계획, 노계

도태계획 및 교체계획, 생산계획을 작성하고 나아가서는 판매처를 전제로한 판매계획까지도 수립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기타 자금계획, 방역 계획까지도 수립하여 결정해야 한다.

2) 부로일러 양계

부로일러 양계는 전년도 11월, 12월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던가 사육규모를 확대해 가는 시기가 보통 그 해 1월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로일러 사육에 있어서도 산란계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계획을 년초에 치밀히 수립해야 한다. 특히 1970년도는 부로일러 사육가들이 예상밖의 생계 가격 저하로 운영에 곤란을 당했던 해였으므로 금년도 부로일러 양계사업을 하실 분은 사업 시작전에 시중 수요 공급량을 월별로 정확히 분석하여 예상 육계가격을 어느정도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계획 수립시는 도계공장, 생계 수집상과의

사전 계약체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판매계획에 따라 그 해의 사육 규모를 결정한 후 생산에 임해야 할 것이다.

3) 종계장, 부화장

전년도 8, 9월에 수입된 종계는 1, 2월경에 성계사로 이동되기 때문에 성계 입식계획을 완료함과 동시에 3월경 부터 이루어질 종란채취, 입란, 부화사업을 위해 종란 생산 계획, 초생추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각 사육업자들로부터 초생 후 예약을 접수하여 월별 판매계획을 작성한다. 특히 겨울동안 부화 사업을 중단했던 부화장은 그 간에 거래선과의 거래중단으로 새로이 병아리가 생산되면 판매가 큰 문제시 되므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판매계획부터 수립해 두어야 한다. 이 외에 그 해의 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산란계 부화에 치중할 것인가 아니면 육계 부화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고 여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종계 품종을 선택하도록 해야한다.

2. 환경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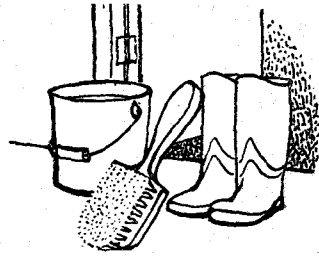
1) 온도

1월은 월중 평균온도가 -10°C이하로 내려가게 되므로 계사내 보온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사내 온도를 10°C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만약 온도유지가 곤란하게 되면 보온장치를 강화하여 급수기 내의 물이 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급수기의 물이 얼 정도면 산란율이 저하되든가 발육이 지연되고 사료 소모량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 종계사인 경우는 종란이 동결되어 부화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1
월

김 상 곤

〈인산농원 양계부장〉



되므로 계사내의 온도를 상승시키든가 집란회수를 증가시켜(1일 최소한 5회 이상) 집란 즉시 보자기 등으로 포장하여 중란 보관실로 이동시켜야 한다. 더우기 부로일러 사육을 위한 바타리사에서는 상하층의 온도차 때문에 발육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출하 및 교체계획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하 난로에 의한 보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화장내의 온도는 최소한 21°C 이상 유지함이 좋다.

2) 습도

계사내의 온도가 저하되고 사내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리깃이 불량하게 되어 습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여러가지 질병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특히 콕시듐증). 평사계사에서는 젖은 자리깃을 교체하고 케이지 계사에서는 빈번한 제분작업(除糞作業)에 의해 계분수분(糞水分)에 의한 습도 상승을 막아야 한다(최소한 3일에 1회 제분작업). 그 외에도 젖은 바닥에 생석회를 뿌리던가 주간 따뜻한 온도하에서 창문 환기장등을 열어 계사내의 습기를 최대한 제거시켜야 한다.

3) 환기

계사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기창 환기구를 밀폐하고 계사내에 보온장치(연탄난로, 석유난로, 기타)를 설치함으로써 사내 공기는 탄산가스, 암모니아 가스, 일산화 탄소가스 등으로 오염되기 쉽다. 특히 닭은 호흡량이 타 동물에 비해 2-3배 이상이나 되며 바타리 케이지 계사 같은 곳은 단위 면적당 수용수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계사내가 오염되어 산란율이 저하되고 성장 발육이 불량해 지는 것은 물론

환기불량으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게 되므로 외기온도가 너무 낮을 시는 주기적으로(30분에 1회 정도) 환기창을 열어 계사내에 신선한 공기를 주입시켜야 한다.

4) 광선

동지(冬至)를 지난 1월의 일조시간은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월 평균 일조시간은 9시간 57분(일출 7시 42분, 일몰 17시 39분)으로서 산란중인 산란계나 종계에 있어서는 조명시간이 부족되므로 품종별 일정한 점등 계획에 따라 일조시간을 연장시켜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50% 정도의 초산계에 있어서는 14시간 이상, 산란계 노계에 있어서는 12-17시간, 육계 종계 노계에 있어서는 18-20시간 정도로 일조시간을 연장시켜 최대의 산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년도 가을이나 겨울에 입추되어 옥추, 옥성중에 있는 병아리는 일조시간이 점차 연장됨에 따라 차후 산란시에 가서 조산(早産)하게 되므로 종계에 있어서는 종란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가을 겨울에 입추된 병아리는 동지(冬至)때의 일조시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조명시간을 조절해야 한다. 새벽 점등시간에는 외기온도가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므로 이때 모이통에 사료가 없거나 물통의 물이 얼어 있으면 점등이 오히려 역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급이 급수관리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사양 관리

1) 영양

사료배합시 충분한 열량의사료를

보강해 주어야 하며 사료섭취량 또한 증가하게 됨으로 표준 급여량보다 5~10% 정도 더 급여해야 한다. 특히 체중급이 중에 있는 육계 종계에 있어서는 표준급여량만 급여하다 보면 체중이 표준체중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불량한 환경조건과 더불어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곡류를 보강한 고열량 사료를 수당 7g 정도 더 급여해 줄이 좋다.

4. 방역 위생

1) 뉴캐슬 예방접종

뉴캐슬병은 여름보다 겨울이 감염율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 주기를 여름보다 1개월 정도 당겨 접종해야 하며 부로일러에 있어서는 필히 3일령과 3주령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해야 한다.

2) 콕시듐 예방

계사내의 환기불량, 자리깃의 습윤으로 인하여 중 대추시기에 콕시듐의 발병 우려가 많으므로 계사입구에는 울소-디크로벤젠 소독제를 비치하고 오염계 및 오염우려가 있는 닭에 대해서는 콕시듐 예방치로제(암푸를, 설파제)를 3일투여 10일중단 3일투여방법에 의해 실시함이 좋다.

3) 소독

겨울동안 비위 두었던 부로일러사는 청소 수세 토양소독 건물소독을 동시에 실시하고 3-4월 출하를 위한 부로일러 초생주 입추준비를 완료하고 산란계를 위한 옥추사도름 옥추를 위해 청소, 수세, 살균, 살충소독을 반복 실시해야 한다. 부화장도 입란준비를 완료시켜야 한다.

